

라디오사 저작권 현안 간담회 개최 회의 안건

1.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4:00

2. 장소 : 한국방송협회 대회의실

3. 안건

가. 음악저작권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 KBS, MBC와 관리비율 관련 현재 2심 최종 변론 완료.
 - 선고공판 : 5월 13일(목)
- 위 소송과 별개로 3사와 협상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요청함. 3사는 협상에 응하여, 2020년 10월부터 협상 진행 중이나, 타결 여부는 미지수임.

2)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 함저협, 지속적으로 음악사용료 지급 요청
 - 2017년 ~ 현재까지 TV3사와 종편에만 청구 진행함.
 - 라디오사 일부 사는 계약 후 1회 사용료 지급, 일부 사는 청구하지 않음.
 - 2020년 7월 - 라디오사, EBS, 지역MBC, 지역민방에 2017년~2019년 방송 사용료 정산 요청 공문 발송.
 - 2020년 10월 : 방송협회-함저협 사전 간담회 진행
 - 2020년 12월 : 함저협,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음악규시트와 편성표 요청함.
 - 2021년 1월 : 방송협회, 일부 지역사의 편성표를 함저협에 전달함. 이후 함저협은 검토중이라는 회신과 함께 이후 추가 회신 없음.
 - 2021년 2월 : 일부 라디오사를 상대로 음악사용료 지급 요청함.
- 함저협 사용료 지급요청에 대한 이슈
 - 방송사에 음악규시트(음악사용내역)를 요청함.
 - 관리비율 적용 : 함저협은 지역MBC에는 MBC의 관리비율, 지역민방에는 SBS의 관리비율 적용을 요청함.
- 향후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사가 현재 지급하는 음저협 음악사용료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방송협회는 2020년 7월 27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은 음저협 사용료의 가지급 현황과 향후 정산 가능성에 대한 공지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나. 음악저작권접권

1) 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 2021년 2월, 3사(지역MBC 포함)와 최종 협상 완료함.
- KBS, MBC, SBS, 지역MBC - 음실련 방송보상금 계약 체결 배경
 - 저작권법 개정(2016. 9) : 판매용음반 → 상업용 음반으로 용어개정
 - 음실련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법 개정으로 인한 라이브러리 음반에 대한 인상 요청함(보상금 요율 18% → 25% 제안). 방송사는 개정된 법률안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두 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음.
 - 2019년, 두 단체는 소송을 제기함(원고 : 음산협, 음실련, 피고 : KBS).
 - 두 단체와 방송사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3월 최종 계약 체결하며 소송 취하함.
 - 음산협은 협상 중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가 확정되어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음실련만 계약 완료함.
- 지역MBC - 음실련 계약 주요 내용
 -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보상금 요율 변동, 과거 모니터링 비용 청구
 - 기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지급했던 보상금의 정산 방안 등
- 음실련 - 라디오사와 재계약을 위한 협상 요청함.

2)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 음산협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함. 음산협,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가 확정되어 지위 상실함.
- 2021년 4월 1일 - 차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보상금 업무를 공식 개시함.
- 현재 문체부, 음산협, 연제협 3기관은 보상금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논의 중임.
- 현재 연제협과 보상금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없으며, 위 TF팀 인수인계 과정이 종료되면, 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다. 어문저작물

1) 한국방송작가협회

- TV3사에 IPTV 재송신료에 대한 권리처리 요청
- 지역민방 넷트방송료에 대한 권리처리 요청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문예협)

- 문예협, 2021년 협회 해산 계획
 - 2021년 5월 26일, 문예협은 임시총회 개최하여 협회 해산 후 타 단체와의 합병을 의결하고 저작권 신탁사무를 통합 이전할 예정임.
 - 문예협과 합병을 계획하는 단체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임.
- 방송협회는 2021년 1월 문저협과 간담회를 개최함. - 어문저작물 방송사용 신탁단체의 복수화는 부인함. 향후 합병 이후에도 기존 문예협과의 계약의 내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라. 방송실연자

- 1)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 전송요율 인상 및 전송개념 확장(유튜브, WAVE 등)을 요청 중임.

마.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 현황

-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Soundmouse와의 계약 추진 중임.
- 2021년 하반기 베타 테스트 버전이 구동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추진 현황

- 2021.01.19.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
- 방송협회,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대응 - 문체부 의견서 제출, 국회 문체위 입법조사관 의견서 제출, 대표발의 의원실 방문하여 의견개진 등
- 도종환 의원실은 향후 의원실, 문체부, 방송사(방송협회)간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할 예정임.
-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개정(안)	방송협회 의견	근거
'디지털동시송신권' 개념 도입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함. 기존 "디지털 음성송신"을 "방송"의 개념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을 역제안 함.	1. '디지털음성송신'의 도입 시와 동일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 2. 방송사업자 저작권접권 침해 증가 우려 3. 대부분의 방송서비스가 디지털화 된 시점에서 디지털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관련된 분쟁만 초래 될 것

<p>‘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개념 도입</p>	<p>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함.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공감대 마련 후 민법 등 기타법률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상의 저작물 개념 논란 2. 특정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제한함. 3.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책 마련
<p>‘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p>	<p>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다 정교한 도입이 필요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자의 ‘거부권’이 명기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음 2.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음. 3. 이용자의 이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문구 삭제필요
<p>‘저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 제도 도입</p>	<p>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함.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공감대 마련 후 민법 등 기타법률에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의 기준이 모호함.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2. 초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음. 3. 적은 수익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권도 필요할 것임.
<p>‘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p>	<p>단서조항의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작기여자를 100% 파악하는 것은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불가함. 2. 공동저작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필수적임.